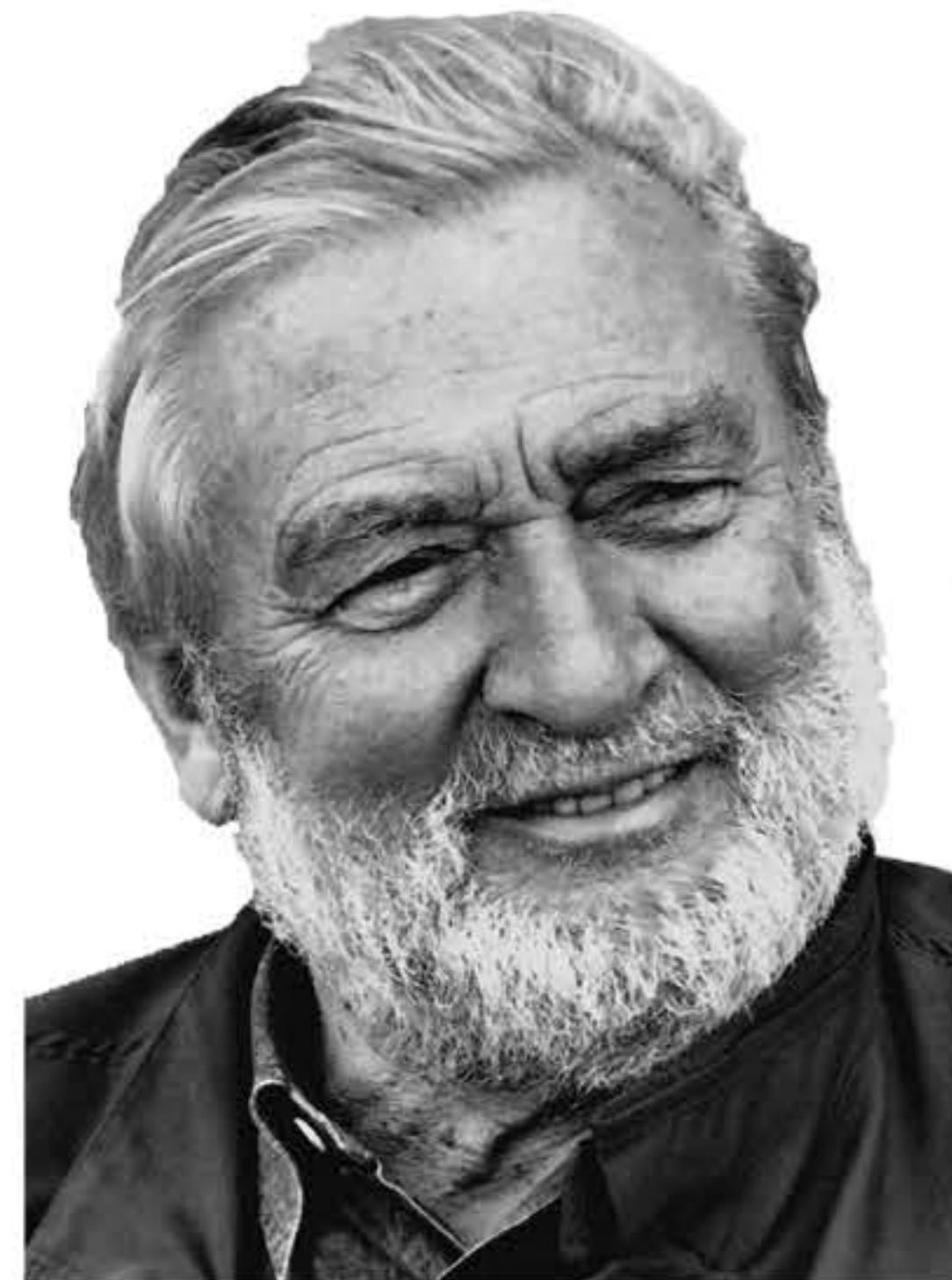


앉아, 보다 베르너 팬톤 展



09.16 - 10.14

베르너 팬톤 전시

카페 비건드 1 - 2F

09.24 14:00

베르너 팬톤을 초상하다_토크콘서트

강연자: 심보의 취향 변재홍 대표

건축 디자이너, 빈티지 디자인 가구 수집가

— VERNER PANTON —

1926 – 1988

덴마크 모더니즘의 우아함부터 팝아트의 강렬함까지.

전례 없는 독특한 디자인과 신소재의 사용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디자인의 흥미로움을 선물했던 그는 한결같이 자신만의 독창적인 세계를 만들어 갔다.

20세기 전설적인 가구 디자이너로 추앙받는 베르너 팬톤의 삶과 그의 작품을

이 곳에서 보고, 앉고, 읽고, 들으며 보다 감각적으로 느껴보자.

“You sit more comfortably
on colours you like”

좋아하는 색깔의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더욱 편안하게 쉴 수 있다

- 베르너 팬톤 -



— SECTION —

덴마크 디자인의 이단아, 베르너 팬톤

20세기 중반 데니쉬 모던의 전성기에 활동했던 디자이너 베르너 팬톤을 소개한다. 새로운 디자인을 끊임없이 연구하던 팬톤.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팝 아트’를 품은 예술가이자 디자이너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디자인 안에는 그의 호기심이 가득하다.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자유로운 생동감이 가득한 그의 디자인은 20세기에 완성되었지만 오늘날 보아도 여전히 미래지향적이다.

팬톤의 색채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는 그의 디자인에 빠지지 않는 것, 바로 ‘색채’이다. 1998년, 72세의 베르너 팬톤은 인터뷰에서 “나는 컬러풀한 쿠션이 가득한 커다란 방을 꿈꾸는 아이”였다고 말한다.

베르너 팬톤의 대표 작품

중력을 무시한 형태의 반전, 최초의 일체형 디자인, 강렬한 원색.

당시 센세이션을 불러왔던 그의 디자인은 오늘날 산업디자인의 시초가 된다.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영감을 주는 그의 다양한 디자인 중 대표 작품을 볼 수 있다.

팬톤와이어_Panton Wire 와 팬토노바_Pantonova

유려한 곡선의 디자인부터 나사가 없는 형태까지.

그의 끊임없는 도전정신은 또 다시 새로운 형태와 소재로 나타난다.

국내최초로 인문랩에서 아웃도어 스테인리스 소재의 팬토노바 8피스를 선보인다.

Epilogue : 앉아, 보다

베르너 팬톤의 디자인에는 혁신과 유쾌함이 담겨있다.

호기심이 가득한 도전, 사용자의 즐거움을 생각한 공간.

그가 21세기에 살았다면 어떤 디자인이 탄생했을까.